

영원과 하루

시간의 개념을 탐구해온 최재는 작가가 가장 슬픈 시간의 장소인 DMZ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부터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건축전에서 'DMZ 공중정원'을 선보인다. 하루 같은 영원, 영원 같은 하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최재는 작가에게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 물었다.
photos by JOE YOUNG SOO



최재는 작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미세먼지가 심하하네요." 197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아방가르드 예술의 최진방인 소게츠 회관에서 공부한 그녀는 요즘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끔찍한 오염의 도시 서울에 온 건 5월 28일부터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건축전에 건축가 시게루 반과 함께 선보일 작품 'DMZ 공중정원'을 위한 자료 조사 때문이다. 'DMZ 공중정원'은 대나무와 천연 재료를 이용해 DMZ 지상 위에 보행로와 공중정원, 전망대, 생태계 도서관 등을 지으면 좋겠다는 영원을 담은 설치 및 비디오 작업이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 참여한 적 있는 그녀는 이로써 건축전과 미술전을 모두 섭렵한 작가가 됐다. 이런 타이틀의 즐거움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역사 자료 앞에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듯했다. "기난한 시민들이 흰색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은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힘을 강조해온 그녀는 이번엔 죽음으로부터 삶, 과거로부터 미래를 얘기하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래 인터뷰를 읽어보면 나온다.



DMZ 프로젝트인 '夢의 庭園 / Dreaming of Earth'를 위한 스케치
夢의 庭園 / Dreaming of Earth 조감도



(W Korea) 1999년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 2014년 '리얼 디젤 프로젝트' 참여에 이어 분단과 대립이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관심을 또 새로운 작업으로 풀어냈다. 이번 DMZ 공중정원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건축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전 작업과 차이가 있는 듯하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떠올린 계기는 무엇이었나? 최재는 형편없는 작품이긴 하지만 아무소식조차도 방문조차도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경계에 대한 기록 <길 위에서>를 작업하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2014년에는 매년 칠월에서 개최되는 '리얼 디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정리 역에 'No Borders Exists in Nature'라는 텍스트 설치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작가가 DMZ 공간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다 공중에서 뭔가를 해보자는 명랑한 꿈을 꾸게 됐다. 공중이어야 하는 이유는 DMZ에 지리가 묻혀 있기도 하고 DMZ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DMZ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간 장소지만 아니라이러게도 엄청난 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곳이다. 65년간의 슬픔 속에서 6천 종의 식물이 번식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상황이 생태계를 보존한 것이다. 공중 정원이라면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은 채로 인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공간이 생소하려면 해서 살아 있는 소재 즉 대나무를 사용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DMZ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성숙하게 접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

'DMZ 공중정원'은 여러 차례 공공의 건축 작업을 선보인 건축가 시게루 반과 함께한다. 시게루 반이야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를 작업의 일부만으로 적극 끌고 들어와 표현하고, 종이 건축 등 소재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 시게루 반이 이 작업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인도주의적 작업도 많이 한다. 마침 이번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이 사회적 건축물을 주로 설계한 알레한드로 아라베네타다. 그 사람이 제안한 '반쪽짜리 아파트'는 굉장히 철학이다. 여러 사회적 관계를 융합해 민민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한 거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제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해졌다. 그렇게 맛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같은 사람도 용기 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웃음).

실제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서의 실차는 어떻게 선보일 예정인가? DMZ의 200분의 1 크기로 거대한 흙덩어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흙 속에서 풀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무한한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다. 생태계의 대표로 개미가 나가 있다고 보면 된다(웃음). 생태계와 대비해 휴먼션을 경계

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DMZ 아카이브를 보여주 거다. 양평의 두물머리는 두 종류의 물이 만나는 뜻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뒤섞이는 곳이다. 자연은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처럼 경계가 없다. 그 장소를 촬영한 자로도 보여주고, DMZ의 발레를 우는 소리로 들려준다. 우리가 설치할 장소를 가보니 광장도 더러운 곳인데 빛이 잘 들어온다. 그게 너무 좋다(웃음). 때때로 그 공간을 같이 쓰는 작가가 자연을 건축에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페터 쉼토라라고 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그의 건축물은 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동일부와 UN에 DMZ 공중정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DMZ 공중정원이 현실화되는 미래를 상상해본 적 있나? 만약 그 작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것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냐? 우리 DMZ 공중정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1km 높이의 실제 건축물을 대나무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만약 실제로 'DMZ 공중정원'이 설치된다면 그 공간은 남북이 만날 수 있는 공동의 장소가 됐으면 한다. 모두의 생태계가 어느 누구나 그 장소에 올 수 있어야 한다. 통일되기 전 베틀밭에는 '체크포인트 칠리'에 여자를 보여주고 얼마간의 비용을 내면 동독에 가서 건축물을 둘러보고 12시간 전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들은 TV 프로그램도 서로 공유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으나 싫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기쁘다. 관심을 보이는 경기도 지자체가 있어서 어쩌면 내년에 'DMZ 공중정원'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연의 순환과 재생'이라는 주제를 이토록 오래도록 탐구해온 어떤 계기가 있었나? 브뤼셀 과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책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통해 모든 사회 구조는 혼돈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했다. 혼돈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혼돈이 없다면 진화도 없는 거다. 철학자에 가까운 그분 강연을 듣고 좋아서 내 작업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World Underground Project)'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몇 시까지 브뤼셀 우리 집으로 오나라'고 연락이 오다. 나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인데 내일까지 브뤼셀에 오 내다(웃음). 마침 다행히도 파리 유네스코에서 안도 다다오, 에르네 스토티스 등과 강의를 할 때였다. 문제는 전시 후에 강연을 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단계 건조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니 할만큼 무시하고 그들이 먼저 강연을 한다고 했다. 근데 노인과 같이 많아 1시간 넘게 강연을 하시는 거(웃음). 겨우 내 차례가 돼 이 아기를 마치고 렌터카로 혼자 브뤼셀에 찾아가다. 그렇게 일리아 프리고진의 교류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내 작업에 생물학적 워킹스탑 들어오게 된 거다. 19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생물 인스톨레이션 비디오 작업을 참가한 것도 그분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8시간 동안 밤하늘을 촬영한 타임 랩셀, 현 책에서 쓴 '종이를 재료로 만든 설치 작품 '만물상'과 'Paper Room', 후지산의 수천 년 된 거대한 나무 뿌리를 콜로즈업해 5개의 영상으로 보여준 '영원과 하루' 등 시간 역시 작품의 주요 주제였다. 작품의 완성을 시간에 맡겨두는 등 시간이 작업의 형식이나 방식이기도 했다.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의 시간성과 부딪치는 게 내겐 가장 흥분되는 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시간의 힘을 기다리는 거다.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나라에 종이를 물렸는데 그 나라, 그 토양의 그 시간성이 만들어낸 색이 다 다르더라. 신도 예측할 수 없을 그 지점이

흥미롭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심지어는 다 색어서 흙덩어리가 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가져다가 전시했다.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은 시간을 다룰 때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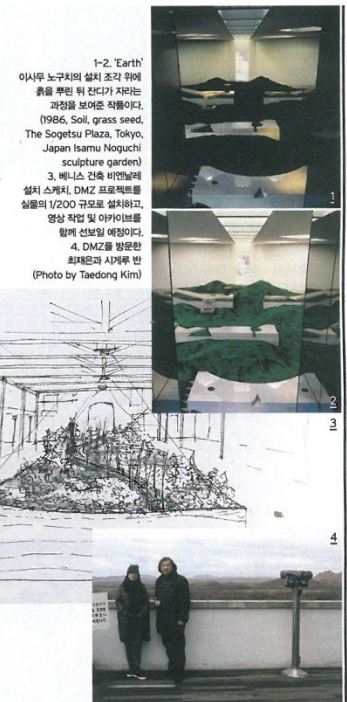
1986년부터 시작해온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는 아직 현재진행형인가? 아직 오대산 역 베틀밭, 미국 롱아일랜드에 들어 있다. 이미 그 종이는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 언젠가 마음이 변하면 꺼내려고 한다. 비보 같은 작업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 일리아 프리고진에 의하면 사람의 시간관이라는 건 종교의 시간관, 신의 절대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반면 동양의 시간관은 순환하고 흘러가는 자연에서 비롯됐다. 사람이 수직의 세계라면 동양은 무한한 수평의 세계인 셈이다. 그런 말이 참 좋더라. 동양에서는 수평적인 것, 넓어 있는 것도 조리가 되는 거다.

'영원만큼 죽음을 자주 생각하냐?'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몸 내부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나. 누구나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5월에 열리는 사진전에 사진 4점 정도를 전시한다. 어느 겨울 두 달 동안 빈 방에 꽃을 찾아놓고 꽃이 죽어 시들면 새로운 꽃을 가져다 놓고 또 그 꽃이 죽으면 또 새로운 꽃을 갖다 놓으면서 죽음과 삶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프라하에서 전시하기도 했던 그 작품 제목은 'Nobody's There, Somebody's There'. 누구나 존재하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는 얘기가. 거기에 사실 존재하는 건 시간밖에 없다.

아무래도 시간을 가장 대범하게 쓴 건 소게츠 회관에서 있는 이사무 노구치의 거대한 설치 조각 'Heaven' 위에 흙을 뿌린 후 잔디가 자라는 과정을 보여준 작업 'Earth'일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영화 《오래의 여자》로 유명한 나의 스승, 테시가하라 히로시 덕분이었다. 내가 선생님이 일하면서 일할 당시 일본 소게츠는 오키와토로. 아베 고보 등이 중심이 된 일본 전위 예술의 진원지였다. 테시가하라 히로시는 그 운동의 디렉터였다. 거기서 물리학스 운동의 백남준 선생님, 요셉 보이스도 만났다. 테시가하라 히로시 선생님이 내 첫 개인전을 이사무 노구치 선생님의 'Heaven'이 있는 소게츠 회관에서 하라고 했다. 단, 이사무 노구치가 허락하면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다. 이사무 선생님이 여러 안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사무 선생님 80세 생일 파티가 있었다. 테시가하라 선생님이 나보고 생일 파티 공간 설치도 말고 이사무 노구치가 좋아할 만한 작품 전시 안도 가져오라는 거다. 이사무 선생님의 설치 조각 'Heaven'은 맥 톤에 가깝다. 조각이 거대하니라 그전에 열린 많은 전시에서 다들 작품을 조각 위에 올려놓았던 거다. 조각에 파고들어야 하면 흙으로 싸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일 파티 공간은 빗줄을 이용해 설치 작업을 하고 흙으로 'Heaven' 조각을 뒤덮겠다는 안을 이사무 선생님에게 보여줬더니 '이, 이런 걸 생각하는 본도 이근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거다. 문제는 그 설치를 하다가 선생님 조각을 조금 부러뜨렸다는 거(웃음). 해산시의 성철스님 사리탑 '신의 공간'은 이사무 선생님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탄생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은 항상 '조각은 날아갈 듯 가벼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성철스님 사리탑 '신의 공간' 설치된 '해인사', 수천 개의 대나무로 'Synchronic' 작품을 올린 적 있는 경동교회 등 작품을 만들었던 서울의 공간에 종종 가보기도 하나? 해인사는 가끔 간다. 성철스님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싶었다. 그분을 기리는 사리탑에서는 모든 장식을 제거하고 본질만 표현해야 한다고 느꼈다.



1-2. 'Earth' 이사무 노구치의 설치 조각 위에 흙을 뿌린 뒤 잔디가 자라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다. (1986, Soil, grass seed, The Sogetsu Plaza, Tokyo, Japan Isamu Noguchi sculpture garden)
3. 베니스 간초 비엔날레 설치 스케치. DMZ 프로젝트를 실현의 1/200 규모로 설치하고, 영상 작업 및 아카이브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4. DMZ를 방문한 화가들과 사계후 반 (Photo by Taedong Kim)

세 개의 물이 각자 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식 구조 공법을 활용해서 심하게 만들었다. 성철스님은 본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만 취하면서 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다.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냐? 나는 고노와 번뇌 속에서 사는 바보(웃음). 한편으로는 그런 고노와 번뇌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고노와 번뇌가 없으면 죽음도 모른다.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처럼 지금껏 만든 작품 중 단 하나를 미래의 지구를 위해 땅에 묻어둔다고 상상해보면 어떤 작품이 좋을 것 같나? 모든 작품이 무(無)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소멸하는 건 아름다움 것이다. 그게 바로 순환이니까. 영인 혹은 하루를 살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나? 하루다. 영인이 하려고 하루가 영원 길일 수도 있잖아. 보르헤스가 자주 쓰던 '1001이라는 개념'이 있다. 엄청나게 거대한 양을 기리키는 1000에 또 하나를 더한다는 건 무한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좋아한다. ■ 프라헤스 에디터 | 나현